

일본의 양계업

산란계

일본산 계란의 공정경쟁 규약안 제출

작년 11월말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브랜드란 표시 적정화」가 요구되어 계란의 공정거래규약안을 검토해온 중앙계란규격거래협의회(계란 관계 중앙 10개 단체로 구성)는 7월5일 업계로서의 규약 안을 정리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이것을 받은 위원회는 각종 절차를 거친 다음, 소비자위원회가 참가한 공청회를 열어 심사한다. 최종적으로는 관보에 고시되어 시행되지만 고시는 빨라도 금년 가을 이후에나 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계란거래규격협의회는 작년 11월말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브랜드란 표시 적정화가 요구되어 중앙단체로 구성된 규격거래협의회를 중심으로 공정경쟁규약안을 검토해 왔다. 이번에 정리된 국산계란의 공정거래 규약안은 농림수산성규약이나 식품위생법, JAS법으로 정해진 명칭이나 내용량, 상미기간, 보존방법, 원산지명의 표시 등은 기존의 법률에 따르고 있으며 그 밖에 영양강화란으로 강조 표시하는 경우에는 「성분대비자료」의 기재를 의무화하고 있다.

브랜드란의 초점이 되는 「특정용어의 사용기준」에 대하여 (1)닭의 사양환경에 관한 표시, (2)특정의 병원체대책을 강구한 내용의 표시, (3)닭이나 계사 등의 안전·위생대책에 관한 표시, (4)유전자조작사료의 미사용과 수확 후 저장·운송 중의 농약 미사용 내용의 표시, (5)토종닭 알의 표시, (6)유정란의 표시, (7)기타 표시금지 용어에 대하여 업계의 의견 일치를 얻어 소비자에게도 이해될 수 있는 합리적인 정의를 정하여 이에 기초한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경쟁규약안은 적정하게 표시한 사업자는 「공정」이 각인된 회원증지를 표시할 수 있고, 위반자는 50만엔(円) 이하의 위약금을 부과하는 벌칙규정도 담고 있다(계명신문 발췌).

2005년 난가 보전 기준가격 1kg에 1,630원

2005년도 난가기금보전 기준가격을 전국계란가격안정기금, 전일본난가안정기금이 회의 열어 전년도보다 40원 비싼(4円) 1,630원으로 결정하였고 적립금도 전년과 같이 금액으로 결정하였다. 2005년도의 난가보전기금의 보전기준가격은 다른 식육이나 유제품 등 정부유지가격이 거의 전년도 수준으로 결정되어 난가 보전 기준 가격도 같은 수준에서 정해진 것으로 보인다. 2003년도와는 90원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생산자의 불만이 남아 있고, 생산비용은 사료가격의 상승, 가금 인플레이션 대책에 따른 위생비, 가축배설물법시행에 따른 계분처리 비용 등이 더해져 인상되었기 때문에, 2005년도 기준가격은 2003년도 수준으로 해야 한다는 생산자의 주장이 있었고 일부에서는 가능하면 1,700원 수준이 바람직하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이러한 생산자의 의향을 받아드려 난가기금이 정해지게 되었다. 2005년도 기준난가는 (1)금년의 높은 난가의 지속으로 보전기준가격이 다소 높아도 보전이 발생하기 어려운 점, (2)생산자 역시 난가보전금을 받는 것보다 적립에 의한 이윤이 유리하다는 점 등이 보전 난가 결정에 영향을 준 배경으로 보인다(계명신문 발췌).



윤 병 선

한경대 GRRC 전임연구원/농학박사



다이옥신 억제소형 소각로 판매

온수소각로 보일러로 2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소와(昭和)기공(주)에서 이번에 「다이옥신 억제소형소각로 SP-203」을 개발하여 발매하였다. 신제품은 소비자의 요구에 맞추는 전략으로 「지구에 적합하고 사람에게 알맞은 것을 추구한다」는 기본정신으로 개발한 것으로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다이옥신 등을 분해한다.

주요 특징은 (1) 고성능=다이옥신류의 농도(배기ガス)를 기준치의 1/5, 매진(煤塵: 연기나 먼지 중에 포함된 입자)농도를 1/10 이하로 한다, (2)높은 내구성=소각로 본체, 집진기(배기통)는 내화물 또는 스테인리스로 열에 강하여 내구성이 매우 우수하다, (3)경제성=독자의 연소방식으로 소각대상물이 열원이 되어 연소가스온도를 유지한다. 소각로 내 연소가스온도가 떨어진 상태에서만 보조연료장치가 작동하기 때문에 연료가 절약되어 대단히 경제적이다. (4)안전성=소각로 안쪽과 차단된 상태에서 폐기물을 투입할 수 있도록 안전성을 배려한 것 등이다. 소각능력은 일반적인 쓰레기의 경우 시간당 43kg, 사용연료는 석유이며 전원은 3상 200V를 사용한다. 무취무연 소각으로 양계장에서 폐사계나 일반 쓰레기의 처리에 최적이며 연소효율이 좋아 보조연료는 거의 필요 없는 정도라고 한다(계명신문 발췌).

혹서대책자재 라이트웨이브 신 발매

메이팜은 계사의 지붕이나 외벽에 칠하는 것만으로도 자외선을 낮추어 계사 내 온도를 낮추는 백색안료 「라이브웨이브」를 새롭게 발매하였다. 라이브웨이브의 원료인 산화티탄은 태양광이나 형광등 등으로부터 나오는 자외선에 당으면 유기물을 분해하는 성질(광촉매 효과)을 갖고 있어 (1) 살균, (2)냄새제거, (3)곰팡이, 물때 등의 분해, (4)빛의 흡수반사작용에 의한 도포면내부의 온도저하 등 많은 장점이 있다.

산화티탄은 물리적 안정성, 높은 안정성으로 식품첨가물로서 인정되어, 식품이나 화장품, 식품용기의 코팅재료로도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산화티탄은 물에 녹기 쉽기 때문에 도료나 타일에 늘여 메꾸거나 열로 녹여 붙이는 등의 방법을 택하지 않으면 이용할 수 없어 일반적으로 보급이 늦어 있다. 이 산화티탄을 특수접착제로 침전되지 않고 이용하기 쉽도록 만든 것이 「라이브웨이브」로서 동력분무기를 사용하여 계사 지붕이나 외벽 등에 간단하게 칠할 수 있다. 10L들이 한 통으로 지붕은 15배 외벽은 10배 물로 희석하여 약 2,000m²까지 칠할 수 있다. 혹서대책으로 도움이 되고 암모니아 냄새 분해, 세균·곰팡이 등을 살균하여 계사환경을 깨끗하게 한다(계명신문 발췌).

시로마진 과립, 액체 발매

후지다(フジタ)제약은 파리 유충대책의 살충제 시로마진과립 2%의 「후지다」, 시로마진 10% 「후지다」를 발매하였다. 시로마진은 파리 생활고리를 끊어 작용하지만 외골격을 갖지 않는 포유류에 대하여 높은 안전성을 가지고 있다. 파리 발생 또는 유충이 서식하는 장소에, 바닥면적 1m²에 과립 2%는 25g를 그대로 혹은 100~400ml에 100ml의 물로 녹인 수용액을 축·계분위에 산포하고, 액체 10%는 1,000ml의 물에 희석하여 축·계분위에 산포한다(계명신문 발췌).